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가정                      제목 : 변하는 가정 윤리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15절

-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니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3:1-15)

오늘날 윤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가치관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제각기 제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간다.

참고로, 윤리란 행동의 원리, 행동의 가치관을 일컫는 단어다.

말세의 윤리는 도덕적이지 않다. 말세에 세속적인 사람들은 선을 싫어하며 선한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악한 것들을 선한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모순이며 이기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그 이유는 윤리가 악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말세를 당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생각과 양심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고, 예전에는 범죄와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되었는데,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멋처럼, 또는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대의 흐름이니 순응하며 살 것인가?

시대를 개탄하며 비판하며 살 것인가?

너는 너, 나는 나. 내 맘에 편리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것인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인가?

정결한 본을 보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뒤로 갈수록 정답이다.

만약 뒤의 두 가지 윤리를 취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윤리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하였다.

-왜냐면 행동원리를 잘 알수록 선도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죄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충격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유익하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할 때 심판자의 심정이 아닌, 돕는자의 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죄인이 죄인을 괴롭힌다.

-미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완화시켜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였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는 것.

-순서의 문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 죄가 된다. 자기와 쾌락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요즘 드라마에 매일 나오는 모습들이다.

2.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왜 악해지는 것과 말세감각이 함께 거론되는 것일까?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말세라는 말의 의미도 세속적인 사람들과 성도는 다르게 해석한다.

-세속적인 말세윤리와 성경적인 말세윤리가 다르다.

-세속적인 말세윤리는 이제 다 망할 것인데 멋대로 살고, 어차피 다 없어질 운명이니 맘껏 쾌락이나 즐기다 망하자는 윤리이다.

-성경적인 말세윤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땅이 펼쳐질 것이며,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거룩한 생활을 하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자는 윤리이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기가 속한 일터나 지역이 거룩해져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더 성실하고 진실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다.

3. 오늘날의 고통은 윤리가 변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

-왜 윤리가 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끼리의 윤리가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상대방의 것으로 여긴다.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전10:29)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10:33)

-물론 이또한 마귀가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10:31)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처럼 윤리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배려하지 아니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

-말세에는 살기 어려워져서 고통당하기 보다는 이처럼 윤리적 가치관이 혼란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4. 더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 받는다.

-악한 것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해가 된다는 뜻이다.

-더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자신의 만족의 성향과 취향을 악한 쪽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해가 된다는 뜻이 된다.

-자신의 정서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삶, 자신의 몸, 자신의 경제나, 자신의 관계, 자신의 가정이나 교회, 자신의 나라나 사회에 더 해가 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생각이나, 입장이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권리나, 자존감에 상처나 해가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나 부모에게까지 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천륜까지(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윤리)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속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한다.

5. 가정에서의 윤리문제

자, 이제 가정에서의 윤리문제가 고민이다.

-왜냐면 가까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앞선 문제들이 발생하면 가족

들끼리 제일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이 선진국이 되고 발달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세밀하고 정교해 졌다는 것을 말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이 개인적인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가족관계를 끊을수도 없고, 한집에 살면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는가?

-결국 선행의 최대 수혜자는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랑과 배려와 무한한 이해심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악함을 방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악을 선으로 감싸서 악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간에는 무시, 비판, 비난, 모독, 부정 금지.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 특히 식구들에게 그렇게 한다.

## <찬양예배>

주제:건강    제목: 질병에 강한 사람    말씀:시편 41편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41:1-13)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를 보살피라고 하셨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을 이해하고, 생활을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내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도 방치하면 몸은 쉽게 망가진다. 잘 만들어져서 쉽게 망가지지는 않지만, 방치하는데 장사는 없다.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래도 결국 재앙의 날이 닥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재앙을 막아낼 길은 없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인데, 재앙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이다. 질병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명감당하다가 처절하게 죽는 경우는 있더라도, 질병에 굴복하여 죽지는 말자!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왜냐면,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웠다는 말은, 병 때문에 편히 쉬어 회복하고 있다는 뜻.

-하나님께서 회복을 도우시며 병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뜻.

-누워 있을 때마다; 매번. 항상 우리가 병으로 투병하려고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  
하리라 하오며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향한 악담이 나에게 치명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을  
이기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악담의 나라. 그러나 악담에 강한 사람이 되자. 악담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다만 악담이 나를 방해할 수는 있다.

-악담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자.